

福士慈稔 教授의 「元曉と和諍」에 대한 論評文

은 정 희

논평자로서 이 논문을 여러 차례 꼼꼼히 훑어보았으나 필자가 주장하려고 했던 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음을 먼저 밝혀둔다. 왜냐하면 이 논문은 ‘會通’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인용문 위주로 나열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필자의 설명이 부족하고 주장이 애매하여 인용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논평자가 나름대로 구성한 이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1. 머리말”에서 원효의 저술 및 사상을 ‘和諍’으로 보는 다수의 선행 연구가 있으나, 원효의 저술 중에 ‘和諍’이라는 말은 단 한차례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효 사상을 和諍이라는 말로 나타내기 어렵다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2. 다음으로 “2. 원효저술에 보이는 화쟁·회통”에서 필자는 원효 저술에서 “會通”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문장을 모두 인용하고 나서, “和諍”이라는 글자에 비해 “會通”이라는 글자가 훨씬 많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원효 사상을 會通, 融和思想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和諍”이라고 보는 것에는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또 필자는 『十門和諍論』을 논외로 하면, 현존하는 원효의 저술 가운데 『涅槃宗要』에서 “화쟁”이라는 말은 한번밖에 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원효가 자신의 사상을 “화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간다고 했다.

3. 원효 사상을 “화쟁”이라고 보는 것에 의문을 던지는 데에서 더 나아가 “3. 元曉章疏의 인용에서 보이는 후세 사람의 원효사상 인식”에서 필자는 원효 사상을 “회통”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로 삼았다. 현존하는 원효 저술이 많지 않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의 견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5쪽)에서이다. 필자는 한중일 삼국의 견해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인의 경우 “원효의 사상을 <회통>·<융화>, 또는 <화쟁>으로 파악한 사람을 찾기란 곤란하다(6쪽)”고 말했다. 한국인의 경우 정작 원효를 和諍國師라 명명한 의천은 빼놓고 表員의 예를 들어 “원효의 사상을 회통사상으로 파악하기에는 예증이 너무 적은 것 같다(8쪽)”고 말하고 “한국인으로 『십문화쟁론』을 인용하면서 원효의 사상을 <회통>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건동과 균여 두 사람이며, 만약 『同異略集』이 智憬의 저술이라 한다면 균여 단 한사람이 된다(10쪽)”고 결론짓고 있다. 일본인의 경우 『십문화쟁론』의 인용을 하고 있는 경우조차도 원효의 사상에 대해서는 “<和諍>이 아니라 <會通>·<會> 또는 <和合>이라는 말”이라고 못박고 있다.

4. 결론적으로 필자는 1) 三國人이 원효 사상에 대해 ‘화쟁’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모두 화쟁 사상이 아니라 『십문화쟁론』이라는 텍스트를 가리킬 뿐이라고 보았다. 2) 결국 필자는 오늘날 원효사상이 “화쟁”으로 파악된 까닭은 내용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和諍篇』이라는 詩에서 원효의 『十門和諍論』을 찬탄했고, 의천이 『祭芬皇寺曉聖文』에서 百家의 異諍을 和會한 원효를 찬양했으며, 이에 따라 화쟁국사라는 諡號를 붙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위 논문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원효 사상에 대해 “和諍”인가 “會通”인가 하는 것을 문제로 삼으려면 먼저 필자 자신이 이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두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둘째, 원효 사상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이다. 한 사람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내용적 이해보다 단어의 빈도수가 중요한가? “화쟁”이라는 단어보다 “회통”이라는 단어가 더 자주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그의 사상을 “회통”이라고 규정해야 하는가? 만일 “화해”라는 말이

“회통”보다 더 자주 나온다면 그의 사상을 다시 “화해”라고 규정해야 하는가?

셋째, 필자는 원효와 시대적으로 가까웠던 후세 사람들의 견해를 살펴해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원효의 저술을 가장 많이 접하여 서지학적으로 정리하였고 그의 사상의 전모와 의의를 잘 알고 있었던 의천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필자의 결론적 주장이 무엇인지 애매하다. 원효 사상을 “화쟁”으로 보는 것에 그저 의문이 든다는 것인가, “화쟁”이라 불러서는 안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화쟁”을 사상이 아닌 텍스트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자는 것인가? 회통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면, 회통도 아니라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필자도 결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은 원효의 사상을 “화쟁”이라 파악하여 和靜國師라고 諡號하였다: “오로지 우리 해동보살(원효)만이 갖가지 학파의 서로 다른 논쟁들을 화합시켜 그 시대의 지극히 보편적인 논의를 얻었다(唯我海東菩薩…和百家異靜之端得一代至公之論).” 의천은 원효와 동시대를 살았던 규기를 비롯한 중국의 대학자들이 명구(名句)에 집착하거나 이치만을 숭상하는 한계를 보였던 반면, 원효는 모든 논쟁들을 조화시키는 사상을 천명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당시 중국의 교학자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會通을 추구했으나, 의천이 보기에 원효가 갖가지 교학을 회통하려 했던 방식은 당시 동아시아 불교계에서도 독보적인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 특징을 부각시켜서 “화쟁”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의천의 견해는 존중되어야 한다.

의천은 독단적으로 원효 사상을 “화쟁”이라 평가한 것이 아니다. 이는 원효 사상의 핵심을 드러내는 말로서 동시대 및 이후 한국불교계에서 널리 공유되었다. 고려시대에 이미 원효가 “和靜國師”라는 시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려사』 숙종조(재위: 1095~1105) 6년 8월 계사일 조서에도 ‘원효를 “大聖和靜國師”로 추증한다’고 하였고, 그 후에도 明宗代(재위: 1170~1197)에 韓文俊이 “和靜國師碑銘”을 지어 분황사에

세운 것 등으로 보아 원효의 사상을 화쟁 사상이라 보는 것은 韓國佛敎史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和諍”이라는 말은 중국이나 일본 불교계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로서 한국불교계에서 원효 사상을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이며, 韓國佛敎史에서 공인되어 이미 널리 쓰여왔던 말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원효의 저술내용으로 보거나 역사적 사실에 의거하거나 ‘和諍’이라는 용어는 원효의 사상적 성격에 걸맞는 것이라 생각된다.